—제120주년 인일기념—

천도교 세계화 전략
학술발표회

포덕 158년 12월 24일(일) 오후 3시
수운회관 907호

천도교 세계화 전략 학술발표회

차 례

■ 식순 ——— 04

■ 격려사 / 이정희 교령 ——— 05

■ 기조강연

● 동학하는 천도교 / 이상면 ——— 09

■ 주제 발표

● 해외 포덕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석영기 ——— 23

● 천도교의 세계화-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천도교 접근 전략 / 정의필 ——— 35

● 원불교 해외 교화 역사와 현황 / 김태성 ——— 43

식순

● 1부 개회식 (15:00-15:40) | 사회 : 김호성

- 개회
- 청수봉전
- 심고
- 주문3회병송
- 격려사(교령)
- 기조강연 - “동학하는 천도교” (이상면)

● 2부 발표 (15:40-16:40) | 사회 : 이상면

발표 1 : “해외 포덕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석영기)

발표 2 : “천도교의 세계화 -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천도교 접근 전략” (정의필)

발표 3 : “원불교 해외 교화 역사와 현황” (김태성)

● 3부 전체토론 (16:45-17:15) | 사회 : 임형진

● 폐회 (17:20)

격려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도교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위하여 기조강연을 해 주시는 이상면 교수님, 그리고 귀한 원고를 발표하여 주시는 석영기 교수님, 정의필 교수님, 그리고 김태성 교무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도교는 일찍이 보국안민의 시대적 과제를 앞세우며 창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국안민은 천도교의 궁극적 목표인 포덕천하와 광제창생을 통한 지상천국건설이라는 더 크고, 더 넓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도교의 세계화란 바로 "포덕천하와 광제창생"이라는 중간적 목표를 오늘날의 말로 표방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도교의 세계화란 단순히 세계에 천도교를 포교한다는 '포교 전략'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으로는 천도교인 스스로 세계 속의 나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세계 속의 일부임을 자각하는 것이 천도교의 세계화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의 세계화란 전 세계 인류가 일일생활권이요 지구생태계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로서, 천도교의 세계화란 곧 이 시대에 용시용활하는 천도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덕이라는 말 자체가 '덕'을 이 세상에 편다는 뜻이요, 광제창생이라는 말도 널리 온 세상 사람과 나아가 생명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인과 더불어 만물이 모두 한울님 모심을 알고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천포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한울공동체를 이룩해 가는 과정이 바로 천도교의 세계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의 이 세계는 고삐가 풀린 소처럼, 두려움을 상실한 채 물질적 성취와 발전이라는 길로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포덕천하 광제창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후천개벽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는 그 가운데서 사람의 새로워짐의 속도가 물질세계의 새로워짐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도교가 긴급하게 세계화의 기치를 앞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도교의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의 진리는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가 처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널리 알려서 각각의 자리에서 '보국안민'하는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도교 세계화의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도교의 세계화'란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단시일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학술발표회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이제 첫 발자국을 떼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략을 다듬어 나가고, 또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면서 천도교 세계화라는 원대한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해 주실 발표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격려사를 마칩니다.

포덕 158년 12월 24일
천도교 교령 이정희 심고

기조강연

동학하는 천도교

이상면

동학하는 천도교

이상면_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론

1905년 12월 1일 의암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정치적 투쟁을 지양하고 종교 활동에 전념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로부터 종교로 공인받아 은도시대(隱道時代)를 마감하고 현도시대(顯道時代)를 열었다. 그로부터 백여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천도교보다 동학을 더 좋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천도교 초기에 이용구 등이 친일을 한 것이 있지만, 1906년 초 손병희가 귀국하여 그런 인사들을 출교시켜버리고 구국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이니,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동학을 좋아하는 것은 종교로 여기기보다 조선 말 망국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상으로 거족적으로 일어난 당시 민중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천도교는 동학혁명운동을 계승하여 항일독립운동의 빛나는 공훈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후발주자로 도리어 그에 소극적이었던 동학계열의 원불교나 증산교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1] 천도교가 교정일치(敎政一致)를 내걸고 구국운동을 하는 동안, 그들은 종

---

*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하버드대 법학박사). 이 글은 필자가 관계된 단체와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1 동학전란 후에 나온 증산교는 무장투쟁 금지의 원칙을 내걸고 민인이 그 전란에 희생당한 것을 한탄했다. 그 후발주자인 원불교도 일제로부터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면서도 항일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여 내공을 쌓은 공적이 있기 때문이다.[2]

동학이 유불선 3교에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서학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었다. 동학 천도교에는 이처럼 타 종교와 통섭적인 배경이 있고, 원불교 증산교 등 동학 계열의 유사종교가 있으니, 종교 간 대화의 장을 여는 데 비교적 수월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동학 천도교가 서학 기독교를 비롯하여 타 종교와 교리상 통섭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과 배타적 자세를 지양하고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유용한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道)는 같지만 학(學)이 다르다

교조 수운 최제우는 조선 말 하원갑 혼란기에 구법을 위해 20년이나 주유천하를 하고 이어서 다년간 수도한 끝에 1860년 천령(天靈)의 강림을 받아 득도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천도를 동학이라고 칭했다. 그는 동학과 서학을 구분하여, 하늘이 내린 운(運)이 하나이고, 도(道)도 한가지지만, 리(理)가 맞지 않아 학(學)이 다르다고 했다.[3] 그는 지기(至氣)에 접령(接靈)하여 득도할 적에 하늘님(天主)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며, 주문을 외어 수심정기할 것을 가르쳤다.[4] 한늘님(天主)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접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서세동점의 기세를 타고 들어온 서학 기독교가 기제사를 거부하는 등 우리 생활 관습에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아 각종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던 시절, 동학에는 하늘을 모시는 천제사상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유불선 3교의 좋은 점들이 있어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동학이 서학처럼 천주(天主, 하늘님)를 모시고 사민평등을 주장하여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수운은 결국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로 처형당하고 말았다.[5]

그날 이래 동학도들은 동학이 서학과 엄연히 다른데도 조선 정부가 양반 사회의 근저를

2 천도교는 구국운동과 내분으로 내공에 정성을 덜 기울인 탓에 종교다운 면모가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이를테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박사의 견해, 인터뷰 2017.11.8.

3 『동경대전(東經大全)』 논학문(論學文), 8.

4 불교의 일종인 밀교(密敎)나 전통신앙에서도 주문의 외는 습속이 있다.

5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응(一應) 좌도난정율(左道亂政律).

뒤흔들 것을 우려하여 서학과 동학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교조를 처형했다고 억울해 하며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다.[6] 정부가 신원을 거부하고 동학을 불법 단체로 몰아 탄압에 나서자, 그 무렵 풍미하던 민란에 도화선이 되어 급기야 동학전란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배경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동학이 서학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교조의 말씀대로 동학과 서학은 운(運)이 하나에 도(道)도 한가지지만, 서로 리(理)가 맞지 않아 학(學)이 달랐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유일신교인데, 동학은 하늘님(天主)을 받들지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다신교 내지 범신론적인 면이 배경이 있어, 서학과 리(理)가 맞지 않고 학(學)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서학에서 신봉하는 하느님(天主)과 동학에서 받드는 하늘님(天主)은 둘 다 하늘과 땅의 우주적 질서에서 지고(至高)의 경지에 있어 함부로 접하기 어려운 존재였지만, 천주(天主)를 대하는 생각과 자세가 달랐다.

동방과 서방에 따라 신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적지 않았다. 동방에서는 농경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상호부조가 필요하여 여러 지도자가 각기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각기 역할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다. 힌두교에서 그렇고 불교에서도 미륵불 등 부처가 여럿이 있었다. 칠성각에도 성황당에도 심지어는 집에도 토착신이 따로 있었다.

그에 비하여 중동의 사막 지대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족을 이끌고 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유대교의 여호와(Jehovah,Yahweh, יהוה)나 이슬람의 알라(Allāh, الله)처럼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필요했다. 페르샤의 조로아스터교(拜火敎)도 역시 그랬다.[7] 유일신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는 모세(Moses, מֹשֶׁה)의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하고 선민의식을 키우게 했다.

그런 사회에 예수가 나타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로 그의 말씀을 전한다며 만민평등을 부르짖고 나왔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예수는 그럴수록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서, 누구나 하느님을 잘 믿으면 성령에 접할 수 있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했다.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

6 결국 1907년에 와서야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을 보아 교조 등 억울하게 처형된 이들의 신원이 이루어졌다.

7 고대 페르시아의 철학자 조로아스터(Zoroster)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 배화교(拜火敎)라고도 하며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Wide Lord)를 신앙한다. 조로아스터의 본명은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이다.

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바리새인(Pharisees)들은 유일신 여호와의 율법에 도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다.

예수가 부르짖은바 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대한다는 하느님(天主)은 폐쇄적인 유대교의 여호와에 비하여 관용적이며 인간적이었다. 그 하느님은 하늘에 있기만 하고 율법만 내리는 여호와와 달리,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내려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분으로 임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반농경 사회인 그리스 로마로 건너가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8]

⑵ 동학(東學)의 초기의 면모

동학에서 신봉하는 하늘님(天主)은 지고지기(至高至氣)의 령(靈)으로 인간이 수심정기로 접령하여 모실 수 있어 인간적이다. 유대교의 여호와 같은 유일신과 사뭇 다르다. 기독교가 삼위일체설로 인간적인 면을 평가받았다고 해도, 서방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 예수는 엄연히 '하늘에 계신 절대전능의 존재다. 그에 비해 예수를 자연인으로 보는 동방 교회에서 하느님은 성령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존재다. 러시아정교나 동방 교회의 인사들에게는 동학에서 신봉하는 하늘님(天主)은 그들이 믿는 하느님(天主)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였다.

동학전란 때 조선에서 근무한 러시아 외교관 제노네 볼피첼리(Zenone Volpicelli)는 1896년에 출간한 『청일전쟁(The China-Japan War)』이라는 책에서, "최복술(崔福術, 崔濟愚)이 과거에 낙방하고 정신적 충격에 어물어물하다가, 천주교 교리에 심취하여 기도 수련을 하다가 득도하여 동학을 창도했다."고 썼다.[9] 볼피첼리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외교관으로 동학란과 청일전쟁에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모아 연구하여 러시아어로 학술서를 썼다. 동학이 유불선 3교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는데, 교조 최제우가 기독교 서적에 심취하여 장기간 기도와 수련을 통하여 득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8 성부와 성자를 같게 보는 서방교회에서보다 예수를 자연인으로 보는 동방교회에서 한결 인간적인 종교로 변했다. 서방교회에서는 아직도 바리새파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배타적인 교파가 적지 않다. 성령을 강조하는 영성주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교파에서 보면 그것은 참 기독교에 어긋나는 것이다. 류기종, 『영성강좌』(2013), 56-76쪽.

9 제노네 볼피첼리(Zenone Volpicelli)는 이탈리아식 이름으로 가명이었다. 그의 러시아 이름은 블라디미르라는 이름뿐이며 성은 모른다. 최복술(崔福術)은 수운 최제우의 어린 시절 이름이다.

그런 식으로 동학과 동학란을 그보다 수년 전에 있었던 홍수전(洪秀全)의 '태평천국의 난'에 빗대어 설명하는 책들이 더러 있었다. 동학의 태동에 서학의 영향이 있었다는 증언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경주의 최시형 가문의 후손들에 의하면, 지금도 교조가 천주교 신자인 최모씨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10]

그 최모씨는 김대건(金大建)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서 유학하고 함께 신부가 되어 사정에 의해 늦게 귀국하여 당시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오랜 세월 사목을 하던 최양업(崔良業)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을 꼽을 수가 없다. 천주교 측의 당시 기록에도 최양업 신부가 1860년 최복술이 동학을 창도하여 포교함으로써 그 타격이 막심했다고 적었다.[11] 최양업 신부는 천도교 측에 신도를 많이 빼앗겨 교회 유지가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해 보려고 무리하다가 1861년 6월에 이를 보고하러 올라가다가 문경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최제우가 심취해 읽고 기도하는 수련법을 따랐다는 책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십여 년간 주유천하를 하다가 돌아와 처가가 있는 울산 '여시바윗골(裕谷洞)'에 초가 3칸을 짓고 수도를 계속하던 중, 31세가 되던 1855(乙卯)년 봄에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서 왔다는 한 이인(異人)이 찾아왔는데, 그로부터 받았다는 '천서(天書)'일 가능성이 있다.[12] 그 문제의 책은 유도와 불도로 접근해도 깨달아 깨우쳐 내기 어려운 책이었다고 한다.[13] 수운이 그 책에 심취한 후에 기도를 하는 수련법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도교에 관한 서적도 아니었고, 천부경(天符經)도 아니었을 것이다.[14]

그 이듬해 1856(丙辰)년 어느 봄날 스님 한분이 찾아와 양산 통도사(通度寺) 남쪽에 있는 천성산(千聖山,922m)의 북쪽 기슭에 있는 내원암(內院庵)이 기도할 만한 곳이라고 점지해 주

10 해월 최시형 가문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경주 인근에 사는 최모씨와 가까이 지내며 서학에 관하여 많은 담론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해월의 사촌의 증손자 최정간(崔楨幹)이 쓴 『동학100년: 해월 최시형가의 사람들』(1994) pp.14-18.

11 주재용(朱在用), 『배론 성지(聖地)』(1975), p.166.

12 보통 을모천서(乙卯天書)라고 칭한다. 『최선생문집도원일기(崔先生文集道源日記)』, 을묘조(乙卯條).

13 Id. "先生披覽於儒於佛之書文理不當解覺." 표영삼은 이 문장을 "펼쳐 읽어보시니 유도 불도의 책이었지만 문리에 들어맞지 않아 풀기 어려웠다."라고 번역했다. 표영삼, 동학1 (2004),p. 70.

14 Id. 『도원기서(道源記書)』는 본에 따라 '如此書行之' 또는 '願此書行之'로 되어 있다. 둘 다 뜻은 통할 수 있어 무난하다고 하겠으나, 원래 표의하고자 하였던 것은 '願如此書行之'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었다.[15] 경주 용담정에서 남쪽으로 백리나 족히 되는 곳이었다. 수운은 그 천서(天書)에 심취하여 기도로 수련하여 이윽고 득도의 길로 가게 된다.

그 책이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天主實義)』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나라에서 홍수전(洪秀全)이 배상제교(拜上帝教)를 만드는 데 토대가 되었던 개신교 목사 량아파(梁發,梁阿發,亞發,1789-1855)가 1832년에 지은 소책자 『권세양언(勸世良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책은 최양업(崔良業,1821-1861) 신부가 김대건 신부와 함께 유학을 마치고 마카오를 떠나 1849년 입국하던 시기에 광동(廣東)에서 출간되어 중국 남부의 서민들에게 널리 읽혀진 바 있었다.

⑶ 화회소통(和會疏通)의 길

동학이 기독교와 적지 않게 닮은 점은 천주(天主)를 모시기만 할 뿐 아니라 접령(接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조가 주유천하하다가 돌아와 오랜 수도 끝에 우연히 하늘님(天主)에 접령하게 되어 무극대도를 받았으니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수운은 접령시 하늘님(天主)로부터 주문(呪文)과 영부(靈符)를 받았다고 한다.[16] 그 후에 그가 하늘님과 수시로 접령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천령(天靈)과 접하려는 노력을 계속한 것은 분명했다. 일 년여 후에 공개된 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접령을 원한다고 주문을 암송하게 했다.[17]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은 하느님을 잘 믿으면 성령(聖靈)의 강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예수는 하느님이 영(靈,pneuma)이며,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18] 예수는 하느님이 성령을 부어내려 주실 정도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15 현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16 주문(呪文)은 불교 가운데 밀교(密敎)에서 그 한자 한자에 무량한 뜻이 있어서 그것을 외우면 일체 장애를 모면할 수가 있고 크나큰 이로움을 얻게 된다고 하는 신묘한 글이다. 영부(靈符)는 놀라운 효험을 가져다주는 신비스러운 글자나 그림(符籍)을 말한다.

17 주문은 선생의 주문과 제자의 주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강령 주문과 본 주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경대전에 의하면 수운이 무극대도를 받을 때에 그 주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문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에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18 요한복음 4장, 24절; 15장 26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19] 예수는 자신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에 접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신학에서는 신과 접령하는 것을 어느 특정 종교의 전유물로 보지 않는다. 하느님이 기독교인의 전유가 아니듯이, 성령도 유대교나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어느 이교도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조 최제우도 오랜 기간 기도로 수련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제에 지기(至氣)에 접령(接靈)하게 되어 하늘님(天主)과 몇 마디 대화하고 도를 받게 되었다.

신과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은 다양한 개념과 명칭을 붙여서 설명해왔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Logos,이성,지성,지혜)라고 했고,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의 영적인 지혜 내지 계시로 보았으며, 기독교 영성가들은 초월적인 영지(靈智,gnosis), 순수지(theoria) 또는 관상(觀想,contemplatio)라고 칭했다. 동양에서도 역시 비슷한 경향이 있어, 선불교에서는 이를 반야지(般若知,prajria) 또는 법안(法眼)이라고 했고, 도교에서는 진지(眞知), 도안(道眼) 또는 심안(心眼)이라고 했으며, 유교에서는 격물치지(格物治知) 또는 양지(良知)라고 불렀다. 한국의 신학자 류석모는 이를 절대지(絶對知)라고 이름 지었다.[20]

그리스 철학자들이 성령을 로고스(Logos, 이성, 지성, 지혜)라고 포괄적으로 묘사한 것은 인간이 본래 이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로 인간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영적인 활동이 있다는 점을 보고 말한 것이다. 성령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더불어 그 기능을 심화시키고 고양시켜 나가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기능하게 하여 자신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종교의 힘이요 진면목이다.

기독교의 경우 이러한 영성신학(靈性神學)은 예수 이래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왔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예수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동방교회(Eastern Church)의 삼위일체설에 기초할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배타성을 배제

19 "하느님이 보내신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느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고 했다. Id. 3장 34절.
20 류기종, 『영성강좌』(2013), 50-51쪽.

하고 종교 간의 화목을 기도할 수 있게 된다.[21] 하느님과 예수를 동일시하는 서방교회(Western Church) 식의 삼위일체설로는 유일신성이 강조되어 이러한 설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22]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도 다석 류영모(柳永模,1890-1981) 같은 학자는 톨스토이의 '탈전통신앙론'의 영향을 받고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종교경전을 접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각 종교의 종지를 통섭(通涉)하는 통전적(統全的) 영성학으로 승화시켰다. 그가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의 공(空/빔, 없음)과 기독교의 하느님(靈, 한얼님)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진리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도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23] 그가 하느님을 빔(emptiness)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본 것은 고대 기독교 영성가들이 하느님을 인간의 앎의 한계를 전적으로 뛰어넘는 절대초월의 '궁극의 실재(ultimate reality)'라고 본 것과 내내 같은 것이다.[24] 그에 의하면, '공(空, 빔)'이나 허공(虛空)은 지순(至純, absolute purity)의 하느님의 마음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런 공(空) 내지 허공(虛空)을 알고 존중하며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25]

류영모(柳永模, 1890-1981)는 깊은 통찰과 지성으로 기독교와 유불선 3교 사이에는 깊이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26] 인간이 자기완성을 하여 구원에 도달하는 진리의 길이 같은 것인데도 여러 문화에 따라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선과 수행을 통해 머나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유교의 수신과 기독교의 성화도 참된 인간이

21 고대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에 동로마 제국의 관할지역 안에 들어선 비잔틴 전례를 사용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동방교회신학이라고 하면 첫 번째 천년에 형성된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내린 신학을 지칭한다. 동방교회신학은 신앙의 주제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서방교회의 조직신학과 달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융합적인 특징이 있다.

22 서방교회는 라틴식 전례를 따르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그로부터 갈라진 루터교 장로교 등의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 교파를 칭하는 것이다.

23 류기종, 『영성강좌』(2013), 287-288쪽.

24 Id.

25 Id.

26 기독교 신자로 젊은 시절 오산학교 교사와 교장을 지냈다. YMCA에서 연경반을 지도했고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했다. 톨스토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무교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되는 교의적 문제를 다루는 교리에 속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바르게 사는 길(道)을 말하면서 '도(道)라고 말한 도(道)는 참 도(道)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도(道)를 말한 것이라기보다 도학(道學)의 길을 말한 것이다.[27]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도(道)를 선언했을 뿐 자신을 완전한 신이라고 말한 일이 없다.[28] 단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도학(道學)의 길을 말했을 뿐이다. 원래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기의 명칭은 그리스어로 길(道)를 의미하는 호도스(hodos)였다.[29] 그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교(基督敎)는 그리스도도(基督道)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30] 지금 서양에서는 유불선 3교의 영향을 받아 '도(道)의 신학'이 퍼지고 있다.

수운 최제우가 말한바 하나의 운(運)에 도(道)는 같으나 리(理)에 맞지 않아 학(學)이 다를 뿐이라고 말한 것은 서로 이치를 살펴 학(學) 간에 소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학 천도교의 견지에서 유불선과는 물론 기독교까지도 대립적인 관계로 여길 것은 아니다. 그 넷을 통섭(通攝)하는 것이 동학이니, '상호이해와 원융회통(圓融會通)의 관계'로 보고 통섭(通涉)하고 또 통섭(通攝)하여, 동학도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31]

(4) 동학(同學)하는 길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재 한국에는 성인 남녀 가운데 약 56%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44% 가운데 태반이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다. 불교도는 몇 년 전에는 개신교 신자보다 많았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머지 민족종교 가운데는 원불교가 가장 많아 4대 종단에 들어갈 정도다.

천도교도는 3·1운동 무렵에 3백만이나 되었는데 해방과 남북분단으로 2백만 교도를 잃게 되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교도가 70만이나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3천 평이 넘는 수운회관을 짓게 되었으나, 곧 내분에 휘말려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27 『도덕경(道德經)』,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

28 『요한복음』, 14장 6절.

29 『사도행전』, 9장 2절, 19장 9절, 22장 4절, 24장 14절 22절.

30 김흡영, 『도의 신학 II』(2012), 78쪽.

31 류기종, 『영성강좌』(2013), 287-288쪽.

끝에 완공을 보았다. 그 와중에 최덕신(崔德新) 교령이 밀려났고 박정희 대통령과 오해까지 생겨서 결국 그는 북미로 망명길에 올랐다가 입북하고 말았다.

수많은 신도들이 오랜 신구파 싸움에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 식상해서 천도교에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1980년대 초에만 해도 천도교의 기념일 행사는 저녁 9시 텔레비전의 첫 번째 뉴스로 크게 방영되곤 했는데, 그로부터 30여 년을 지나는 동안, 교세는 더욱 하강의 길을 걸어 지금은 7대 종단의 마지막 자리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32]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슷한 시기에 꾸준히 성장한 원불교나 증산교의 경우를 짚어보면 그 답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20~30년대 천도교가 3·1운동의 여파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후발주자인 증산교는 일찍이 무장투쟁 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민족종교로서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할 것을 선언했다. 그보다 더 후발주자인 원불교는 자세를 지표면까지 낮추어 일제 치하에서 유랑하는 빈민을 모아 숙식을 제공하고 개간사업을 벌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시절에 기독교도인 도산 안창호가 원불교 교단을 방문했다고 한다.[33] 서러운 민인에 다가가 고난을 함께하고 제도에 나선 원불교의 거룩한 점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에도 천도교가 이런 저런 내분에 여념이 없을 때, 원불교와 증산교에서는 현대어로 된 경전과 포교집 간행에 힘썼다. 인간사 제반의 근본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여 누구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평범한 원리를 들어 공경과 정성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길가에서 손에 쏙 들어오는 예쁜 경전이나 자료를 나누어 주기도 했고, 대학가에 파고들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천도교에서도 대학을 세울 기회가 몇 번 찾아왔었는데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 원불교와 증산교에는 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교가 국내외에 있어 날이면 날마다 종지를 연구하고 설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도처에서 제로섬(zerosum)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34] 우리나라 성인 남녀

32 갤럽, 『한국인의 종교』(2015), passim.

33 도산 안창호가 창건한 흥사단(興士團)은 아직도 건재하다. 그의 행적에 거룩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불교의 행적에도 그런 거룩한 점이 있다.

34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은 서로 경쟁하는 상대방 간에 한쪽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킨다는 식의 생

44%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여 교단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속해 있는 종교 단체에서 빼내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되겠는가? 누구와 종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야 한다.

동학은 원래 유불선 3교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니 동학도가 그들 종교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동학에는 또 민족종교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권할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나 증산교나 수운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동학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에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류가 적지 않아 대화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기구적이고 표층적인 신앙을 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아 배타성이 강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우선 신학적으로 접근하여 기독교에도 영적 자각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성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요즈음 서양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도(道)의 신학'이 유불선 3교와 교호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를 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통일교처럼 교리에 동학적인 면이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도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천도교는 해방 후 교세가 하강해 온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학전란과 독립운동 시기의 찬란한 공훈을 내세우고 안주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 시절에 잘 나가던 교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교리를 개발하고 확충해 가며 경전을 현대어로 간행해야 한다.

전란의 시기가 지나가고 평시가 되었고 해방이 되어 민주국가가 건립되었는데도, 아직도

각을 하고 있는 경쟁상태.

백여 년 전의 구호에 따라 교정일치(敎政一致)를 해야 한다며 정치 문제를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 집단이 전란을 당하여 구국운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2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기독교단은 초연했다. 조선 말 기독교도는 전란에 휘말리지 않고 순교를 서슴지 않았다. 천도교는 지금이라도 자세를 낮추어 민인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증산교와 원불교가 대일항전과 독립운동에 소홀히 하여 눈총을 받으면서도 일제치하에서 탄압 속에 이루어낸 교세 확장의 비결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천도교가 교정쌍전(敎政雙全)에 내분으로 시일을 허비하는 동안 경전 간행에 내공을 다져 신도의 삶의 애환을 보듬는 길에 나서 결실을 얻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학이 유불선 3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창도되었다는 것은 동학 천도교도가 열린 마음으로 기독교 등 타 종교와 소통과 교류의 장을 열기에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증산교 원불교 수운교 등과도 우의를 다지고 연구와 토론의 장을 여는 등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잘만 하면 종교 간에 화회소통(和會疏通)의 길을 열어 그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 발표

해외 포덕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석영기

천도교의 세계화-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천도교 접근 전략 / 정의필

원불교 해외 교화 역사와 현황 / 김태성

해외 포덕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통일교의 해외 선교 사례를 중심으로

석영기_ 천도교연구소 소장, 선문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인류는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 종교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고통없이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과 슬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무지와 공포,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력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공정 · 불평등한 현실과 이로 인한 고통,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두려움 등으로부터 종교는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다. 종교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도 심도 있게 접근하면서 인류의 삶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즉 종교는 인간생명의 유한성(자기소멸과 이별), 현세의 불안정성, 자연재앙에 대한 두려움,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한 무지와 공포 등을 설명하고 마음의 위안을 주면서 종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각 종교에서는 신자들에게 그 종교의 가르침을 잘 믿고 수행을 하면 앞에서 제시된 기본적 불안상태에서 벗어나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대자연에는 분명히 궁극적인 존재가 있어서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절대적 경지에 올라서 인간다움(평등과 행복과 미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성공적인 포덕(포교 또는 선교)을 위해서는 그 종교가 속하는 지역이나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정 종교가 창도되어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 종교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작은 교단으로 출발하였다가 민족종교가 되고, 그

종교는 다시 많은 도전과 수난을 겪으면서 성장하여 세계적인 종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도태되기도 한다. 초대 기독교회도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로 출발하였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불교도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한자 문화권을 통해서 전래되어, 미국이나 유럽까지 전해지고 있다.

약 160년 전에 창도된 동학 · 천도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한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창도 이후 종단에 대한 정부와 외세의 탄압이 극심했지만, 광제창생 · 보국안민 · 포덕천하 · 지상천국 건설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도교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서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는 존재를 확실히 알려왔다.

하지만, 지난 40년 전부터 교단은 세상과 함께 여세동귀(與世同歸)하지 못하면서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교단 지도부는 교세의 회복과 중흥을 위해 세상 속으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권토중래의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는 천도교로 우뚝 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단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즉 포덕의 대상은 누구이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교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경쟁자는 누구인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발제의 목표는 천도교의 해외 포덕 전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종교 단체, 특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또는 '가정연합')의 해외 선교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교는 해외 선교가 잘 되어서 국내의 교세보다 해외의 교세가 보다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세계 약 190개 국가에 교회를 설립하여 약 300만 명의 신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 통일교의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해외 선교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과 미국에서 전개된 중요하고 특징적인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단의 특성에 맞는 해외 포덕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발제는 천도교에서의 해외 포덕의 중요성, 통일교의 해외 선교 사례를 일본과 미국 중

심으로 소개하고, 천도교 해외 포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천도교에서의 해외 포덕의 중요성

1. 경전에서의 해외 포덕에 관한 문구

천도교 경전에는 대중(창생)을 향한 포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나에게 영부(靈符)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仙藥)이요, 그 형상은 태극(太極)이요 또 형상은 궁궁(弓弓)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受我此符 濟人疾病)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受我呪文 敎人爲我)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汝亦長生 布德天下). (동경대전 '포덕문'⑥ 중에서)

>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龍潭水流四海源),
> 구미산에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로다(龜岳春回一世花)." (동경대전 '절구' 중에서)

>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 영웅호걸이 많이 날 것이니, 세계 각국에 파송하여 활동하면 형상있는 한울님이요, 사람 살리는 부처라는 칭송을 얻을 것이니라. … (중략) … 지금은 도를 권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아니하나 일후에는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 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포덕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면 모든 나라가 자연히 천국이 되리라. 우리나라의 영웅호걸은 인종의 종자니, 모두가 만국 포덕사로 나간 뒤에 제일 못난이가 본국에 남아 있으리니, 지열자가 상재요 도통한 사람이니라.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덕(中原布德)할 때가 되어야 포덕천하를 달성하리라."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 중에서)

2. 교단에서의 해외 포덕 활동

동학 · 천도교는 일반적으로 민족종교라 불린다. 하지만 천도교에서의 핵심 교리인 '시천주(侍天主)'는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

상으로 전개되어 해월신사께서는 '사인여천(事人如天)', 그리고 의암성사께서는 '인내천(人乃天)'으로 발전시켰다.

3 · 1독립운동 이후 교단은 지도부의 피체에 따른 공백으로 교단운영의 어려움이 제법 많았지만, 춘암상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 정비와 청년들의 등장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문화활동(청년운동, 출판문화운동,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에 힘입어 천도교는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서 교세 확장이 이루어졌고, 이에 더하여 천도교의 해외 포덕이 전개되었었다.

1920년대에 해외 포덕이 이루어진 곳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쿠바 등이었다. 중국지역에서는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해와 북경에 전교실이, 그리고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만주의 용정과 화룡에 종리원이 만들어졌다. 일본 지역에서는 3 · 1독립운동 직후에 유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리원이 도쿄, 오사카, 교토와 고베에 세워졌다. 러시아 지역에서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미주 지역에서는 하와이와 쿠바에 종리원이 세워졌다.

2016년 이후 중앙총부에서는 해외포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고베), 미국(LA), 유럽(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해외 포덕과 그 확산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Ⅲ. 통일교의 해외 선교

1954년 5월에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창립된 통일교에서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참사랑을 통하여 참가정을 이루고 착한 생활을 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지상천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며 사람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7년 기본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의 정립과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창립 당시의 명칭이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또는 '통일교')'으로 바꾸면서 지상천국의 이상적 상태로서 참가정의 건설이라는 교리적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기성 종교 단체와 달리 통일교는 종교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 언론, 기업, 교육, 정치, 의료 등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교는 국내에서의 '이대 · 연대사건(1955년)'으로 교세 확장에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일본(1958년)과 미국(1959년)으

로 진출하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1965년에 유럽으로 진출하여 지금은 전 세계 약 190개 국가에 300만 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창립된 통일교(가정연합)가 가치관과 문화와 역사가 다른 나라에 기반을 조성하기까지에는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수난의 선교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문선명 선생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사들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5가지 지시'는 오늘날 통일교의 세계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물질, 사회 전체를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복귀해야 한다. 만물복귀, 개인복귀와 가족복귀, 그리고 세계통일과 복귀를 위해 하나의 세계적 대가족사회를 건설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의 통치권을 먼저 복귀해야 한다.
(2)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교인들이 확신에 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교인들이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3) 교인들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의 체휼 없이는 선교사들은 사랑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4) 교인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국적을 초월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또 세계적으로 같은 문화, 같은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며 국제적인 친교와 국제결혼을 정착시켜야 한다.
(5) 종교의 통일은 반드시 통일사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된 경제체계, 교육체계, 언론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통일교의 성공적인 해외 선교에서 접할 수 있는 특징은 창립자의 확고한 비전과 리더십, 제자들의 선교목적 달성을 향한 불굴의 집념과 노력, 구원 섭리의 교리적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의 역할 특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선교 단계별 주역 설정(1단계 선교 - 한국 교인, 2단계 선교 - 일본 교인, 3단계 선교 - 미국 교인)에 세계 강대국가의 국민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도록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 일본 선교

통일교의 일본 선교는 1958년 6월에 최봉춘 선교사의 밀입국으로 시작되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어서 선교를 하기에는 혹독한 상황이었지만, 순교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앙과 사명감과 인내의 자세로 노력하여 1959년 10월에 도쿄의 한 시계점 2층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1961년 6월에 작은 교회를 마련하고, 나고야에 통일교 일본 교회의 기초가 된 가정연합이 세워진다.

1962년 8월에 3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급성장한 일본의 신종교로, 불교와 기독교를 합한 교리를 바탕으로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주창) 창립자의 비서실장이자 청년부장과 지방의 청년 간부들을 영입하여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일본 통일교의 전국적 확산기회를 맞이하며 전국에 9개의 교회(홋가이도, 센다이, 도쿄, 나고야,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다까마쯔, 후쿠오카)를 세웠고, 대학생 전도를 위해 전국의 각 대학에 원리연구회를 결성하였다.

1965년과 1967년에는 문선명 선생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전국의 간부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개최하여 지도하면서 일본 가정연합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였으며, 1968년에는 출판사 〈광언사(光言社)〉를 설립하여 일본의 전 국민에게 통일교를 알리기 위한 경전(원리강론) 판매, 광고물과 포스터 게시, 거리 퍼레이드 전개 등을 하였다. 그리고 축복식(합동결혼식)을 1969년부터 거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인종을 섞어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다.

1968년에는 당시 일본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역이용한 좌익 세력의 반전 반미운동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 이런 정세를 활용하여 '국제승공연합'을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립하였다. 1975년에는 일간신문 '세까이니뽀(世界日報)'를 창간하였으며, 세계 각국에 선교를 위해 3인(일본 사람,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으로 구성된 선교사를 제3세계를 중심으로 파견하였다. '국제부흥전도단'(1976년), '세계교수평화협의회'(1977년), 국제크리스찬교수협의회(1981년), 국제기독학생연합회(1981년), 세계평화여성연합(1992년) 등을 결성하여 통일사상의 체계화와 세계를 향한 선교를 추진하였다.

1993년부터는 '16만명 일본여성지도자교육'과 '한일축복결혼'을 통하여 일본 교인들에게 정통적인 신앙을 교육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일인 교회'와 '유관순 정신 선양회'를 통하여 한일일체화를 지도하

고, 천지정교와 청평수련원을 통한 영적인 한일일체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통일교 일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헌신적인 신앙과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함과 더불어 선교 자금의 해결을 위해 외곽 단체 활동을 병행하며 통일교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2. 미국 선교

미국에서의 통일교의 성공적인 선교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초가 되었으며, 교회 활동의 영역을 참가정운동, 순결운동, 축복운동, 국경철폐운동, 초종교 · 초국가운동, 천주평화연합운동 등으로 확대하여 정착되고 있다.

문선명 선생의 세계 선교에 관한 철학은, 선교는 결국 사람을 통하여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선교사들을 지성으로 교육시켜 일선으로 파송하고, 재교육수련을 실시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성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와 세계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문제로 압축되고 궁극에 가서는 가정의 구성원인 인간 개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실생활을 통해서 교육하고,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고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는 미국 선교를 위해 1959년 1월에 김영운 선교사(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의 파송을 시작으로,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Swansea University)을 마친 김상철 선교사를 1959년 9월에, 박보희 선교사(주미 한국대사관 직원)를 1962년 2월에, 그리고 최상익 선교사(일본 교회를 개척한 최봉춘 선교사의 또 다른 이름)를 1965년 11월에 파송하여 개척전도활동을 하였다. 김영운은 San Francisco지역에서, 김상철은 Northwest 지역에서, 최상익은 Chicago지역에서, 박보희는 Washington D.C.지역에서 전도와 출판과 교육에 중심을 둔 활동을 하면서 미국 교회의 기반을 만들었고, 향후 유럽 선교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였다. 박보희 선교사는 1962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을 창립하여 한국의 전통 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책임자가 되었으며, 1965년에는 '한국문화재단'을, 1966년에는 '자유 아시아의 방송(Radio of Free Asia: ROFA)'을 설립하여 반공산주의 활동과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선명 선생의 '세계 선교 여행(1965년과 1969년)'은 미국 48개 주를 순회하면서 통일 원리와 승공 사상을 미국 사회에 알렸고, 김영운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들이 유럽 선교 활동에 나섰으며, 1971년에는 통일교의 본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며 국제전도부흥단 활동, 대

학생원리연구회 활동, 일본 선교사들의 경제활동, 순회강연, 3대 대회(매디슨 스퀘어가든 대회, 양키 스타디움 대회, 워싱턴 머뉴멘트 대회)와 희망의 날 대향연 등으로 미국 통일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다.

3. 통일교의 사회활동 현황

통일교의 활동은 종교 · 정치 · 경제 ·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활동 영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통일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도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2017년 현재 통일교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교 활동: 국내에는 41개 교구에 510개의 교회가 있으며, 교역자로는 목사 1,151명, 장로 2,783명, 전도사 4,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교인 수는 44만여 명, 해외에는 190여 개국에 300만 명의 교인이 있다. 통일교에서는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부흥단'을 조직하여 각국에 대한 순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초교파기독교협회(超教派基督教協會)와 국제크리스천교수협의회 · 국제기독학생연합회 등을 설립하여 기성 기독교교단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내 80여 개 대학에 원리연구회라는 대학생 조직을 갖고 있다.

(2) 정치 활동: 반공산주의 비판 활동을 위해 국제승공연합과 세계여성승공연합 등의 단체들을 창설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극우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국제정세가 변화하자, 통일교의 정치 활동도 극단적인 승공운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의 문제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제승공연합은 현재 남북통일 국민연합에 통합되어 활동하는 상태이다. 한편 통일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973년 워터게이트사건(Watergate事件)으로 궁지에 빠진 미국 대통령 닉슨(Nixon, R.M.)을 위한 기도회 개최,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1978년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린 미국 정치계에서의 격론, 1980년 미국

대통령 후보 레이건(Reagan, R.W.)에 대한 지지성명, 그 외 일본 총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은 유명하다.

(3) 경제 · 기업 활동: 통일교의 경제 및 기업 활동은 국내외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는 수십 개의 대규모 사업체(일화, 신정개발, 선원건설, 센트럴시티, 메리어트 호텔, 용평리조트, 세일여행사, 아키키 호텔, 설봉호텔, 부곡콘도, 디오션리조트)와 방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도 100여 개의 기업체와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통일교의 경제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 및 의료 분야에도 청심병원, 청심빌리지, ㈜월드피스메디컬 국제의료봉사단, 국제구호 친선재단, 원모평애재단, 자원봉사 애원 등의 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4) 언론 · 출판 활동: 언론 활동으로는 한국의 세계일보, 미국의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와 통신사 UPI, 일본의 세카이일보(世界日報), 중동 지역의 미들이스트 타임스(The Middle East Times; 중동 지역 영어판 주간지), 중남미 지역의 티엠포스 델 문도(Yiempos del mundo; 남미 17개국 발행 주간지), 우루과이 일간지 Ultimas Noticias, Peace TV(PTV) 등이 있고, 출판 분야에서는 ㈜성화출판사[출판], 성화사[자체홍보물 제작], 통일세계[출판, 청파서림[가정연합관련 서적 판매], 성동문화사[인쇄], 신명출판사, 도서출판 주류, 도서출판 일념 등을 운영하고 있다.

(5) 문화 활동: 예술한국의 선양을 위한 각종 예술단체 구성, 운영 및 국내외 공연을 실시하고, 교육 이념에 입각한 예술, 인문과학 각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 ·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문화재단(1969년 설립)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 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리틀앤젤스예술단 - '태극기를 세계로'라는 기치 아래 한국전통예술의 해외 홍보 목적으로 1962년에 창단되었으며, 8~14세의 어린이를 공개모집하여 2~3년에 걸쳐서 무용, 합창, 가야금과 영어 교육을 받은 후에 공연 활동을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는 상관없이 운영되지만, 작게나마 가정연합 교세 확장에 기여했다.
- 유니버설발레단 - 1984년 한국문화재단에서 창단한 사립 발레단으로 한국의 3대 발레단 중 하나이며, 한국 발레의 해외 진출 및 세계화를 통한 세계 발레의 메카를 지향하며 창설 이후 25년간 국내 1,200회, 해외 16개국 400여 회 공연을 수행하였다.

리틀엔젤스예술단,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그 순간(The moment), 참가정문예단 SUN.

(6) 교육활동:

구분	학교법인 - 선학학원/청심학원
유아/초등교육	선화유치원, 경복초등학교
중등교육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고등교육	선문대학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브리지포트대학교(미국) 등

Ⅳ. 천도교의 해외 포덕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천도교의 해외 포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과 나아가 우리의 현재 실정에 적합한 포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과 강점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한다.

천도교에서도 궁극적인 해외 포덕(광의의 포덕)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시천주'의 보편적 가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종교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지만, 지금 천도교의 실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좀 규모를 줄여서 접근하면 해외의 유력 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민(현지인)을 대상으로 포덕 활동을 전개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정주하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포덕(협의의 포덕)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 전에 전개되었던 해외 포덕 활동을 분석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독교(천주교 포함)가 아시아 선교를 전개했던 방식을 천도교가 현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해외 포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대 기업 경영 개념을 활용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포덕 목표를 설정하여 지혜를 모아 관련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파악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요청된다.

그리고 우리의 포덕 대상(고객)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욕구)을 원하고, 누가 우리의 경쟁자(종교 단체)이며,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것(서비스/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자 경쟁자보다 더 적합한 것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조직 관리를 하면 조직의 존재 이유는 더욱 확실해지고, 조직 구성원들은 그 조직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현재의 종교 활동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만 하면 팔리는 생산자중심시대(seller's market), 즉 판매자(종교)가 구매자(포덕 대상인 창생)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구매자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제품/서비스 공급이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상태여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구매자중심시대(buyer's market)로 변하여서, 판매자들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품/서비스의 설계에 제대로 반영할 때 조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고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해외 포덕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시해 보면,

(1) 경전의 현대화와 번역: 대신사께서 인간 평등과 사회개혁을 위해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현대 감각에 맞게 구성하고, 해외 포덕에 활용할 수 있는 번역 자료 준비

(2) 교단 지도부의 해외 포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발휘

(3) 여세동귀: 종교는 인간과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가치관, 생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나라에 포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연구와 분석(정치적 환경, 법적인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가 더욱 그렇다.

(4) 종학대학원을 활용한 포덕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해외 포덕 정보의 공유. 포덕 방식은 일반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하는 간접 방식과 연고를 통해서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 설법이나 의례 등을 통해서 하는 직접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 포덕은 직접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

(5) 사회적 연결망(SNS)을 활용한 미디어 확보. 전통적으로 구매자(포덕대상)를 찾고 제품과 서비스(종교)를 알리기 위해 광고 수단을 활용했는데(outbound marketing), 오늘날에는 인터넷(웹사이트 검색,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inbound marketing).

(6) 재정 확보. 예산은 조직의 활동과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해외 포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교의 경우 해외 선교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일본의 교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였다. 우리의 경우 성미 제도를 통해서 대업을 실행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국내 포덕도 동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통일교식의 경제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동귀일체 경제관'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7) 접주 제도에 대한 현대적 접근과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길영환, 통일선교학, 선문대출판부, 2002.

김남식(역), 선교정책원론 - 인간화냐 복음화냐?, Peter Beyerhaus(원저), 성광문화사, 1982.

문선명 선생 고희기념사업회, 문선명선생 고희기념문집13 - 태극기를 세계로, 성화사, 1990.

성강현, "하와이 한인사회를 통해 본 천도교와 천도교인의 활동", 신인간, 803호(2017년 10월), 21-31.

양편승, "신종교의 해외 전래과정에 대한 연구 - 통일교의 미국 선교과정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제19집(2008년 10월), 138-180.

양편승, "신종교 국외선교 시 납치감금에 의한 강제개종에 관한 연구 - 통일교 일본 선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제27집(2012), 207-237.

양편승,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선교의 전래 과정과 세계선교에 미친 영향", 신종교연구, 제33집(2015), 171-199.

Kotler, P. and G. Armstrong, Marketing: An Introduction(9th), Pearson, 2015.

Stevenson, W. J. and S. C. Chuong, Operations Management(2nd), McGraw Hill, 2015.

https://namu.wiki,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도교의 세계화-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천도교 접근 전략

정의필_ 울산대학교 · 천도교 울산시교구

1. 개요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편에서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덕할 때가 되어야 포덕천하를 달성하리라”고 하셨고, 묻기를 “어느 때에 현도가 되겠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과 교역을 할 때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는 중국에까지 포덕이 되고 만국과 교역할 때 포덕천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암성사법설 천도교와 신종교편에서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사유물이 아니요 세계 인류의 공유물이니라”라고 설법하시었다. 또한 삼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 방금 세계문명은 실로 천지가 한 번 크게 변하는 첫 운수라. 먼저 깨닫는 그곳에는 반드시 한울님의 돌보시는 기운이 응하리니, 부디 생각하여 천지가 감동하는 정신을 어기지 말라. 무릇 효제충신과 삼강오륜은 세계에서 칭송하는 것이므로,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치신 바라. 우리 도의 종지와 삼전의 이치를 합하여 쓰면 어찌 천하제일이 아니겠는가. 이같이 하면 비단 위에 꽃무늬를 더한 것이니 이로써 명념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하셨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만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중국 포덕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임으로 포덕천하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다. 해외 포덕사를 육성해야 하고 천도교의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또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귀화하여 살고 있는데 우

리들은 이들에게 천덕 사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공존해 왔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였지만, 최근 다문화 사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이슬람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인종과 더불어 다종교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은 국내의 다문화 가정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종교적 갈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 종단의 지원책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에게 천도교를 어떻게 홍보하고 포덕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이해

2016년 한국에는 이미 18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 가족은 82만 명으로 오천년 단일 민족국가가 20여 년 만에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불가피하게 종교 다원화 현상을 초래한다. 다문화 지원 기관 중 종교 조직이나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된다는 통계 숫자는 우리나라 다문화 지원 사업에 있어 종교 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조직의 역할과 기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다문화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힘들다. 종교 조직은 내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종교적 교리에 입각해 친밀한 인적 관계를 만듦으로서 서로 간의 편견과 선입을 없애 사회통합의 초석을 놓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종교 조직은 실제로 다양한 이주민 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즉, 종교 조직은 사회단체 등 여타 조직이나 기관보다 다문화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복지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의 효과가 종교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증폭된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이미 규명된 사실이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217개 지역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으며, 주로 가족 상담 및 교육, 방문 교육 서비스,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통번역 서비스, 멘토링, 나눔 봉사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다누리”라는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사이트가 있으며, 13개국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즈베크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타이어, 몽골어, 네팔어)로 콜센터(1577-1366)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일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의 혼인이나 외국에서 이주해 온 다른 인종과 이웃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낯선 현실이다. 그러나 앞의 통계 수치들에서 보듯이 현실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인은 아직도 혈통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다문화 다민족에 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수의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하여 적극적 포용의 수준보다는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은 주로 소외 계층으로 의사소통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아동, 여성, 가정 등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언어 및 문화적 갈등,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등에 문제점이 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가치관이나 종교관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매개체가 없어서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갈등의 대부분 요인이 언어 장벽에 의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드러나 있다. 종교는 다문화사회에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거나 종교 그 자체가 강력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 미국 내의 한국 교포 자녀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기간 동안에 자기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포 자녀들이 미국인들과 격의 없이 잘 지내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 짐작이 된다.

사회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종 간 문화 간 이동과 교류가 훨씬 자유로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성되어 가는 지구촌의 다인종 사회와 현상은 이제 다인종 다문화를 현실로 수용하

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들의 소수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은 마땅히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 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4. 종단별 다문화 가정 지원

국내에는 많은 종교가 산재하여 있지만 이 글에서는 타 종교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의 다문화 사회 지원에 한정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 가톨릭 : 1971년 "이주사목위원회" 결성 및 1992년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개설 등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주민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는 필리핀 현지에서 믿던 가톨릭과 같은 가톨릭을 한국 사회에서 접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무료 진료 봉사 단체들의 지원, 상담 및 통역, 결혼이민자 지원 센터 운영 등으로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 개신교 : 1990년경부터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를 조직하면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원 종교 단체의 80%가 개신교 단체가 차지할 만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 네트워크"에는 500개 이상의 개신교 이주민 지원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과 연대하여 이주민 지원 활동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 불교 : 불교계는 2000년 이후 다양한 단체를 설립하여 조직적인 이주민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지원 활동은 1994년 불교시민 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주로 사회 복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재단, 한국다문화센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대학생 멘토링, 레인보우합창단, 다문화어린이캠프 등 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미얀마공동체, 캄보디아 부디스트 센터 등 이주민 자국의 공동체 형성에 핵심적 역할도 담당하였다.

○ 원불교 : 원불교 이주민 사업의 교리적 근거는 삼동윤리에서 찾는다. 이는 모든 인종은 한 기운에서 연계된 동포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존재라고 설명된다. 2001년 9월 서울 양천구에 외국인을 위한 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다. 이주민 여성 정착 활동은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몇 몇 교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불교여성회에서 "친정엄마 이모되기" 운동으로 결혼 이주민 여성과 원불교 내 여성회원간의 결연사업으로 이주민 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운동은 종교 조직의 장점을 살려 일대일로 이주민을 지원함으로서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실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지원 사업의 실례를 보여준다. "결혼 이민자 문화 기행", "다문화 가정 뜨개질 교실", "평화의 집" 등의 운영으로 이주민들의 호응과 교당의 지원이 결합한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 이슬람 : 한국에서 이슬람은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서 이들의 종교적 중심지인 모스크(성원)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의 "이슬람 중앙성원"을 비롯하여 전국 대도시에 이슬람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모스크는 국내 무슬림에게 예배의 장소이면서 취업정보, 사교, 전통음식, 식자재 구입 등 다목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무슬림의 음식 복장 등의 생활 문화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차이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종교교육의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 이외에도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의 "종교인다문화 평화 축제" 와 한국종교연합의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캠프" 등이 있다.

5. 천도교의 다문화 가정 전략적 접근

이상의 여러 종교 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외국으로부터 온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타 종교의 다문화 가정 지원책을 더욱 세밀히 벤치마킹하여 교단 차원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선진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공유함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갖는 이들과 소통이 될 것이다. 먼저 종교인으로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상호 인정과 신뢰가 바탕이 이루어진 후에 천도교

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이 수반되면 포덕도 자연히 일어날 것이다.

교단 차원에서 이제 막 시작된 이러한 담론을 더욱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조직도 필요하며, 천도교가 세계화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규정도 제정하여야 한다. 교령님은 대도중흥 비전21과 포덕2500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 교인들은 천도교 중흥을 위하여 총부와 지방교구가 동귀일체하여 정성을 다하고 많은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목표달성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문화 가정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총부 지원 하에 특히 지방 교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포덕은 포덕천하의 대업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해외 포덕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본다면 먼저 포덕 대상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 중 천도교인들이 있을 경우 이들이 신앙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본국에서 지원하는 방향 설정과 우리 경전의 외국어 번역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밴드, 인터넷방송, SNS 등의 여러 채널들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포덕 일어날 경우 오관실행과 교화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약 10년 전에 출간된 “천도교의 세계화”란 책을 환원하신 진암 박영인 선생님께서 저술하셨는데 세계화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천도교가 개방, 평등, 광박, 천연, 세계적인 후천 5만년의 무극대도 일진대 우선 경전을 올바로 이해/해석하여 주요 외국어로 번역/광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왕불복의 이치와 시천주사상을 세계인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먼저 세계 지식인의 공감을 얻어야 언젠가는 일반 세계인에게 전파되어 광제창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6. 결론

우리 사회가 이미 단일 국가가 아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

다. 따라서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순수 혈통주의를 유지하기 힘들며,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늦은 결혼 년령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 2026년이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20만 명을 넘어 섰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잘 지원하여 학교를 졸업 후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다인종 다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며, 이들의 소수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은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 차별 금지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경미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정책방향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정부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이루어 오고 있으나 더욱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편견과 차별 없이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접한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 볼 수 있어 좀 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의 잘못을 전체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대하여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대화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고 다문화 종교 교육을 통하여 종교들 간의 대립을 지향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이다. 우리는 싫든 좋든 다른 민족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국제화 시대라는 현 상황을 떠나,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도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공평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이다. 종교인으로

서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상호 인정과 신뢰가 바탕이 이루어진 후에 천도교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종단의 벤치마킹 사례들을 잘 조사하고, 접근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천도교의 다문화 가정 포덕 역시 전략적 접근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자연히 그들과 소통이 잘 된 후 포덕 사업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포덕을 할 때 그들이 왜 천도교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외 포덕은 먼저 해당 지역의 해외 거주 교인이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교단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의암성사님께서 "천도교는 우리만의 사유가 아니라 만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잘 받들어 포덕천하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1.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가정에서의 종교적 갈등, 박승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0년
2.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3.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 박성호 , 종교와 문화, 제2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년
4. 다문화 사회의 종교의 역할, 윤법달, 개벽신문, 57호, 2016년
5.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최광식, 문체부, 2012년
6. 천도교의세계화, 박영인, 홍익재, 2007년

원불교 해외 교화 역사와 현황

김태성_ 원불교 교무

1. 원불교 해외 교화의 역사와 전개

원불교의 해외 교화는 2017년 현재 22개 나라에 67개 교당, 31개 기관, 130명의 전무출신(원무 교령 2명 퇴임후 자원 봉사자 3명 포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여 명의 교무가 해외교령 및 유학 중이어서 국외 전무출신 수는 150명이 넘는다. 아울러 미주 총부 건설과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의 지원 체제 아래 현지인 교화 시스템이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교서 번역 사업과 종교 연합 운동, 한국내 외국인 직접 교화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원불교 국제 교화는 1935년 일본 대판(大阪)과 만주 목단강 교화를 시작으로 했지만 일본은 1년, 만주는 8년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해방과 6 · 25를 거치며 숭산 박광전 원광대 학장이 1959년 미국와 동남아를 순방하게 된 것이 교단 국제화의 단초가 된다. 즉, 원광대에 설치한 해외포교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간접 교화가 진행된 것이다.

직접 교화를 중심으로 한 원불교의 본격적인 국제 교화는 1972년 이제성 교무의 도미와 이듬해 미국 LA에서 종교법인 등록을 취득한 이후 약 45여 년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정원은 국제 교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자 1981년 3월 국제부를 설립했다. 국제부는 세계 교화를 위한 교화 정책 수립, 교서 · 교재의 번역사업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외 교당 및 기관 설립, 국제 교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근 국제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특징적인 사업들이 중앙총부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국제 교화자의 전문적 양성을 위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가 2003년에 개교해 1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본격적인 국제 교화를 위해 자치 교헌을 가질 수 있는 국외 총부 설립을 향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미주 총부이 설립 전 단계로 원달마 센터를 뉴욕주에 설립하였고 훈련원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의 전 지역을 직접 책임지고 교화 · 교육 · 자선 · 산업 등 모든 분야를 대륙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총부의 기능을 가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7년에 정역원을 설립하여 해외 교화를 위한 기초 기반 사업으로 교서 번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25개국 언어로 원불교 안내와 정전 · 대종경 등 기초 교서를 번역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교서 번역 작업은 그 폭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세계가 하나로 되어갈수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화는 외국 현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불교 발상국인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감에 따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교정원 국제부가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국제선방을 개설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고, 종교연합(UR)추진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서울외국인센터(교무 최서연)가 한국어학교 운영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지원, 법회 운영 등 교화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해외 현지의 교포 교화 지원 차원에서 국제부의 교포 2 · 3세 원불교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원불교여성회의 동북아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 프랑스 입양아 한국 방문 체험, 하와이 국제훈련원에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정전실습훈련을 하는 등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점차 더 다양해지면서 심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원광대학교병원 · 원광보화당한의원과 함께 캄보디아 · 네팔 · 아프리카 등지의 의료 해택이 적은 나라에 양 · 한방 무료 의료봉사활동과 심장병 어린이의 국내초청 무료시술 등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50여 개국의 빈곤과 질병 무지를 타파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원불교 청수나눔 실천회 · (사)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모임 · 네팔을 돕는 (사)함께하는 사람들 등의 단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국제 자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해외 교화의 교리적 근거

가. 제1대 소태산 대종사 법문

○ 일원주의(一圓主義)의 사상이니, 이 주의는 천하를 한 집안, 한 식구 만드는 대세계주의(大世界主義)인 바 그동안 모든 종교가나 사상가들이 진리를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말하였는데 그 원리를 추구해 보면 한 이치이니 그 나누어졌던 것을 합하고 막혔던 것을 트고 통함으로써 일원 일가(一圓一家)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 대종사 말씀하시기를「사람이 이 세상에 활동할 때에 같은 인격 같은 노력을 가지고도 사업의 크고 작음을 따라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이며, 사업의 길고 짧음을 따라 역사가 길고 짧나니, … 그런즉,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범위와 오랜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도덕 사업이라, 도덕 사업은 국경이 없으며 연한이 없으므로 … 오늘에 와서는 그 교법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이미 도가에 출신하였으니 먼저 이 도덕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가장 넓고 가장 오랜 큰 사업의 주인공들이 되라.」- 제13 교단품(教團品) 6장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에 해가 오를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 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 때야말로 큰 도덕 세계요 참 문명 세계니라.」- 제14 전망품(展望品) 21장

나. 제2대 정산 종사 법문

○ 1. 세계에 대하여; 세계는 곧 온 인류를 한 단위로 한 큰 집이니, 인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있어서 각각 그 도를 다하는 동시에 또한 다 같이 한 세계 동포로서의 도를 잘 이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접응할 때에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세계의 일이 결국 한 일임을 철저히 알아서,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대를 저버림이 없이 소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계에 있어서는 온 인류가 한결 같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염원하고 이해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니라. 2. 인류의 도 ; 우리 인류는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길로 다 같이 합심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 그 도를 강령으로써 말하자면 첫째는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종파의 울을 벗어나 이 세상 모든

도리가 한 울안 한 이치임을 알고 한 울안 한 이치임을 알리고 한 울안 한 이치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둘째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같이 종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종족이 한 집안 한 겨레임을 알고 한 집안 한 겨레임을 알리고 한 집안 한 겨레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세째는 세계의 모든 사업인들이 다 같이 사업의 편견에서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일이 한 일터 한 사업임을 알고 한 일터 한 사업임을 알리고 한 일터 한 사업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 제 7 장 세계(世界)

○「우리의 주의는 세계 주의니, 이 주의를 세상에 반드시 실현하자. 대종사 같으신 큰 부처님은 전무 후무하시나니, 모든 것을 대종사께 집중하고, 국한 없는 공부와 국한 없는 사업에 힘을 모으자.」- 제15 유촉편(遺囑編) 8장

다. 제3대 대산 종사 법문

○ 대세계관이란 이 세계는 인류와 일체 생령이 함께 사는 큰 집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생이 내 몸이요, 시방을 내집 삼아 동척사업을 하되 불법을 활용하고 무아봉공하여 전 인류가 공생공영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이니 이 사대관의 실현으로 일원세계를 개척하여 이 지상에 한량 없는 낙원세계를 건설해야 하겠다. - 117. 사대관(四大觀)

○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종교;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종교가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의 세계는 세계 각 민족이 사은의 동근(同根).동족, 한 할아버지의 자손인 것을 발견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웃음 웃고 한 집안같이 의논이 구수하게 살아가는 세계일 것이요, 하나의 종교는 역대 성현들이 천명해 놓으신 여러 종교가 다 동원도리의 한 진리인 것을 깨달아 서로 배우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리통일과 신앙통일이 된 원융무애한 법을 밝혀 놓은 종교인 것이다. - 대산 법문 1. 진리는 하나

3. 해외 교화 현황

교구		국가	교당 (선교소)	기관 (부설기관)
미주서부		미국	로스엔젤레스, 밸리, 샌프란시스코,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프레즈노, 버클리, 덴버, 하와이,	하와이 국제훈련원 미주서부교구 훈련원
		캐나다	벤쿠버	
미주동부		미국	뉴욕, 맨하탄,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보스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애틀란타, 휴스턴, 리치몬드, 마이애미, 오스틴개척	원달마센타, 원보화당 실버스프링보화당,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리선센타 미주 소태산사상연구소, 심원(포코노)훈련원, 원불교총부UN사무소, 뉴욕원광복지관/원광한국학교, 필라 원광복지관/원광한국학교, 워싱턴 보화당한의원,
미주동부		캐나다	토론토	
유럽		독일	프랑크푸르트, 쾰른 레겐스부르크, 베를린	일원 원불교 선 센터(쾰른)
		프랑스	파리	무시선한울안공동체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문화센터(맥) 모스크바원광교육센터(세종학당)
		카자흐스탄	알마타	
중국		중국	베이징, 상하이, 연변, 훈춘, 단동, 청도 성도, 장춘, 곤명, 연태개척, 항주개척, 홍콩	
일본		일본	요코하마, 오사카, 도쿄	
총부 해외 직할	남미지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	상파울로	
		칠 레	산티아고	
	동남아시아 지구	네 팔	포카라	카투만두 새삶원광어린이집 네팔 룸비니삼동스쿨
		캄보디아	바탐방, 프놈펜	원불교무료구제병원, 오인환교육센터, 프놈펜탁아소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개척	
		인 도	델리	라다크 국제명상센타/ 종합병원

교구		국가	교당 (선교소)	기관 (부설기관)
총부 해외 직할	동남아시아 지구	태 국	방콕개척	
		라오스	라오스	삼동 인터네셔널 복지 센터
	오세아니아 지구	호 주	시드니, 퀸슬랜드, 고스포드, 멜번 개척	호주보화당한의원 호주원광선문화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프리카 지구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라마코카	라마코카 원광센타
		스와질랜드	까풍아	까풍아 원광유치원, 보건진료소(병원) 한울안여성센터
		케 냐	나이로비	
		22개국	교당67(개척6개 포함), 기관31 / 총 98개 교당 기관 교역자 130명 (퇴임후자원봉사 3명, 교령 2명포함)	

4. 해외 교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기관 설립

가. 행정지원 - 해외 총부 건립(원달마 센터)

1) 설립 배경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밝힌 세계 교화의 경륜과 대산종사님의 국외총부, 해외 종법사 제도에 대한 부촉에 바탕하여 좌산종사님 때 교단 5대 경륜 중 "4. 세계 거점점지, 5. 결복기 교운의 발진지 건설"을 정하고 교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미주 총부 부지는 일원대도의 법은을 온 누리에 베풀며 주세불의 자비경륜을 세계에 심어갈 도량으로써 세계 교화의 전진기지, 결복기 교운을 열어갈 발진지, 세계사를 이끌어갈 중심지로 가꾸려는 원불교의 비전 사업이다. 현재 북미에는 원기 57년(1972) 미주 교화가 시작된 이래 43년여의 역사 속에 혈성어린 재가출가의 정성에 힘입어 25개 교당과 1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70여 명의 출가교역자와 신심 장한 교도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어법회 및 선방 운영 등 영어권 교화 활동은 원다르마센터와 미주선학대학원 및 10여 개의 동서부 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다르마센터는 원기 81년(1996)부터 시작된 미주 총부 부지를 위한 물색은 수많은 장소에 대한 답사와 협상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도움으로 현재의 위치인 361 State Route 23, Claverack, NY 12513의 대지를 신타원 김혜성 종사의 자녀와 세산 서성범 교무의 헌공금 및 상사원의 시봉금 등의 35억으로 부지의 답사 및 구매의 경비를 조달하였고, 본격적인 토목과 건축 과정에서는 많은 교도들의 희사금으로 현재에 이르는 건축을 마칠 수 있었다.

2) 목적

한국의 원불교 종법사와 수위단회는 "지구상에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을 광대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라는 원불교 개교 동기에 바탕하여 법인이 미국에 조직되도록 지도하였다. 이 법인의 기본 목적은, 특히 정신적인 훈련의 지원, 원불교 교당의 설립과 운영, 원불교 교화사업, 원불교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운용과 지원, 그리고 물질주의와 기술적 진보에 대한 병행으로서 정신을 계발하기 위하여 원불교 자선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운용 및 지원을 포함하여, 미국 내 원불교라는 종교의 진보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인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서의 일원상(법신불)과 함께 사은과 삼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신적인 공부인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법인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기 되도록 도울 것이다. 이 조직의 활동은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주의,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대산 종사의 하나의 세계 건설과 같은 원불교 법통에 기초하며, 한국의 종법사과 수위단회의 지도에 순응할 것이다.

나. 인력 지원 - 미주선학대학원

1) 설립 배경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는 원불교 제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가 40여 년 전 원불교 교무들을 미국에 파견하고 교당을 설립하여 한국인 교포들을 교화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원기 84년(1999) 원불교 최고 의결기관인 수위단회에서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연석, 오선도, 김복인 교무를 추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본교가 인가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정성과 합력이 많았으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산 종사님께서 30여 년 전 고원규 교무와 김복혜 정토를 미국으로 보내어 자리를 잡게 한 후, 김복인 교무를 템플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도록 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김복인 교무는 박사학위를 하며 학계, 교육계의 인사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김복혜 정토는 필라델피아 교당을 설립하는 데 일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정계, 교육계의 중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 학교 설립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대산종사 열반 전, 조실 시자 모두에게 본교 설립에 합력하라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대산종사 열반 후, 시자였던 이성국 교무가 필라델피아 교당 주임교무로 발령을 받았고, 한정원 원로는 본교 법당 교감과 교수로, 시무실장이었던 김관현 교무는 후원사업회 상임위원으로 본교 설립에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이후 필라델피아 교당은 본교 설립의 전초기지로 고원규 이성국, 오선도, 김복인, 백현린, 최영도, 송대성 교무와 교도회장 김복혜 교도가, 본교에는 한정원 원로, 유도성, 박호진 교무가 선학대학팀으로 발령을 받아 미국에서 실질적인 본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한국에서는 전이창, 신제근, 김복환 원로들과 김관현 교무가 주축이 되어 많은 교도님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원기 86년(2001) 11월에 미주 선학대학원 대학교(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가 필라델피아에 펜실베니아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듬해 원기 87년(2002) 9월 1일 개교를 하게 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 고원규 교무를 임명하였고, 대산 종사께서 열반하시기 전, 고문국 교도(원남 교당. 전 서울대부총장역임)에게 본교에 힘을 합하라는 유촉이 있어, 총부와 이사회에서는 고문국 교도를 초대 총장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의 중앙총부와 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본교에 근무하는 교무들과 본교의 상황을 이해하는 미국인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많은 힘이 되고 있으며, 미국 현지의 한인, 미국인 교도들의 큰 관심과 후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 교재 지원 - 역경원 설립

1) 설립 배경

2010년 원불교 해외 교화가 발전을 이루면서 다양한 국가에 교화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어 번역 교서가 새롭게 번역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세계 각국에서 교화를 위한 원불교 교전 현지 언어의 번역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광대학교와 공동으로 역경원을 설립 원광대학의 인력과 재정을 바탕으로 원불교 교리를 지속적으로 번역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역경원을 설립한다.

2) 정역 사업 현황

원기 100년 4월 현재

□ 번역 완료 ■ 감수중 ■ 번역 진행 중

번호	교서 / 언어	정전	대종경	정산 법어	대산 법어	불조 요경	교사	예전	성가
1	영어	완료	완료	감수중 지원	진행중	진행중 지원	진행중	진행중	
2	일어	진행중	진행중	감수중	진행중		윤문중	윤문중	
3	중국어	완료	완료	완료	감수중		완료	완료	

4	독일어	완료	완료	진행중	진행중		완료	완료	
5	불어	완료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지원		
6	스페인어	완료	완료	감수중 지원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7	포르투갈어	완료	완료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8	러시아어	완료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지원		
9	아랍어	감수중 지원	진행중	진행중 지원			진행중	진행중	
10	에스페란토	완료	완료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라. 재정 지원 - 해외 교화 결복 재단 설립

1) 배경

해외 교화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결복 재단을 설립한다. 해외 교화가 발전을 이룰수록 파견 해외 교역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증가되는 외국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현재 한정된 재정으로 해외 교화의 터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교육, 훈련, 문화가 병행된 해외 교화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해나기 위한 범교단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이를 위하여 해외 교화 결복 재단을 설립한다.

2) 방향

원기 100주년 기념을 기하여 국제 성업의 일환으로 해외 결복 재단 설립을 재안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기금의 초기 자금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후 재단에서 100억을 목표로 재정 확충을 이루어 나간다.

5. 원불교 해외 교화의 과제

가. 안정적인 해외 법인관리

원불교는 21개국에 교역자를 파견하면서 교당 기관을 설립을 진행하여 왔다, 파견된 교역자들이 현지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 정서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교당과 기관 설립 시 각 국가 각 주와 도시의 종교 혹은 NGO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다 다르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법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인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중앙총부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 관리를 한국과 현지 교역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 관리가 문제가 되어 해외 교당 및 기관이 어려움이 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해외 교당 기관의 재정 자립

현제 원불교 해외 교당과 기관은 국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40% 정도로 파악된다. 중앙총부의 직접 지원, 국내교당과의 자매 결연을 통한 지원, 국내 거주 개인 교도들의 후원, 후원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을 한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교역자의 파견 교육과정에서 현지에서의 재정을 확보를 위하여 미주 선학 대학원에서는 한방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통한 현지 한글학교 운영, 선 지도사 자격증 확보를 통하여 선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다. 다양한 해외 교화 전략 발굴

국내에서의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단순한 교화로는 해외 교화에서 한계가 있다. 복지, 교육, 훈련, 선, 명상, 마음공부, 문화, 한국어 교육, 한방 교육 등 해당 국가에 맞는 다양한 교화 전략을 발굴하고 파견하는 교무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 포교 연구소에 대한 인력 재정 확충을 통해 진행된 성공적인 해외 교화 사례를 연구하고 각국에 맞는 맞춤형 교화 전략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파견 교역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라. 해외 교화 현지화

해외 교화를 시작한 지 45년에 이르지만 아직도 해외 교포 중심의 교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지인을 위한 교화를 위하여 실력 있는 인재 양성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원불교에서는 독일, 네팔, 미국, 인도, 중국에서 선발된 현지 교역자 배출이 이루어졌지만, 현지 교역자 발굴을 확대하고 양성하여 현지 교역자들 중심으로 현지인들을 직접 교화하는 정책을 확대 해 나가야 한다.

6. 천도교 해외 포덕에 대한 제언

가.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의 이미지 전화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는 수운 대신사를 개벽을 알리는 선지자로 표하시면서 미망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 광명과 빛을 열어주신 이시대의 큰 도인으로 평하시고 있다. 암울한 일제시대에 토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대변한 것도 천도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이미지가 민족종교의 이미지를 강화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해외 포덕을 위하여서는 천도교가 교리 중에서 세계화를 지향할 가치를 재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 종교의 이미지를 세계 종교의 이미지로 전환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천도교 신도들의 내부적인 공감이 절실하다. 해외 포덕이 많은 물적 인적인 투자가 오랫동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총부의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해외 포덕에 대한 지원과 추진은 한계가 있고, 전 신자가 참여 하고 후원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원불교의 해외 교화의 주요 원불교 교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다.

나. 해외 포덕을 위한 인연 발굴

일제하의 천도교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종교였고 그 많은 인연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인연들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거주하는 인연의 도움이 있다면 해외에서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인연들은 재정적인 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연 발굴과 관리는 해외 포덕에 중요한 요소이다.

다. 해외 포덕을 위한 인재 양성

원불교의 해외 교화는 출발은 1940년대에 4명의 인재를 발굴하고 국내 명문 대학 수학과 미국과 일본에 해외 유학을 보내 실력을 배양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의 해외 교화를 위한 진행을 이룸으로서 교서 번역과 현지에서의 인연 확보 등을 통하여 해외 교화의 기초를 놓았다. 천도교에서도 좋은 인재를 확보 교육에 투자하여 천도교 해외 포덕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 해외 포덕을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

천도교에서는 최근 국제부를 신설하고 해외 포덕을 위한 행정적인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해외 포덕은 국내 활동과 버금가는 공력과 재정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재정, 인력, 번역, 해외활동을 위한 지원 등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